산사는 지금 음성공양 중

바람에 함께 실려 살랑대는 풍경소리와 가수들의 노래가 고즈넉한 산사에서 만나면 어떤 하모니가 연출될까.

한동안 경제 한파로 주춤했던 산사음악회가 지역축제와 연계해 올해에는 찬불가, 국악, 대중가요 등 풍성한 장르로 관객들을 산사로 끌어들일 전망이다. 수려한 자연풍광과 고풍스런 산사의 전각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산사음악회는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한다는 즐거움 외에 불법의 그윽한 향기를 가까이서 맡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산사음악회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공연과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로도 안성마춤이다. 산사에서 펼쳐지는 야단법석의 현장을 찾아가 보자.



지난해 10월 열린 '제3회 청량사 산사음악회'에서 도신 스님이 찬불가요를 부르고 있다.



공주 영평사 산사음악회의 국악 연주 모습.

찬불가·대중가요 등 장르 다양 주말 가족 나들이에 안성 맞춤

▲전주 정혜사는 8월 28일 저녁 6시 '한여름밤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일반 시민에게 명상과 불교음악을 선보이기위해 처음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우석대 신용문 교수의 대금연주 '영산회상', 전주예고 정경희 선생의 창작무용 '회심곡'과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이 펼쳐진다. (063)284-3732

▲광주 증심사는 8월 28일 저녁 7시30분 광주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이들의 작은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를 연다. 24번째를 맞은 이번 공연에는 통일과 평화를 노래하는 송시현씨가 출연해 '꿈결같은 세상'을 주제로 노래한다. 한편 이날 증심사는 지난해 입적한 초대 풍경소리지기 일철스님의 추모비를 제막한다.(062)226-0108

▲봉화 청량사에서는 9월 18일 저녁 7시 유리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제 4회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최대한 대중가수들의 출연을 배제하고 10여명의 성직자로 출연진들을 구성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불교계에서는 성악가 정율 스님을 비롯해 심진 스님과 범능 스님이 출연한다.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로 구성된 그룹사운드가 무대에 오르며, '삼소회' 소속 성직자들도 함께 음성공양을 한다. 대중가수로는 유일하게 '찔레꽃'의 소리꾼 장사익 씨와 대장금 주제가를 연주한 국악인 박애리씨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성직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음악을 통해 종교를 초월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054)672-1446

▲공주 영평사는 10월 2일 오후 4시 사찰 앞마당에서 구절초 축제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한다. 출연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출연했던 정율 스님과 장사익 씨, 지역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출연 섭외중이다. 한편 구절초차 시음대회와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된 구절초 축제는 10월 24일까지 계속된다. (041)857-1854

▲단양 광덕선원은 10월 9일 오후 5시부터 경내 특설무대에서 지난해에 이어 '단풍축제와 산사음악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대구불교방송 진행자인 최현태 씨와 진명 스님이 공동으로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의 타악연주, 솟대패 사물놀이 공연을 비롯해 대구팝스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 등이 펼쳐진다.

또 심진 스님은 '무상초'와 '대망'을, 인기가수 강산에 씨는 '라구요' '연어들처럼'을, 소프라노 린다박은 '그리운 금강산'과 '그리운 나의 아버지'를 음성공양 한다. 이외에도 섹소폰 연주자 김영찬 중부대 교수는 '칠갑산'을 연주하며, 가수 설운도 씨도 무대에 올라 '누이'와 '갈매기의 사랑'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과 어우러진 다양한 음악의 향연은 관객들을 산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3)421-6900

▲천안 성불사는 10월 16일 저녁 7시부터 '제 2회 산사음악회'를 연다. 불자 기상캐스터 이익선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가수 안치환 씨가 출연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인순이 씨의 화려한 율동과 그룹 '자전거탄 풍경'의 감미로운 멜로디도 만끽할 수 있다. 청소년 신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불사 락밴드와 충남국악관현악단의 국악 연주도 들을 수 있다. (041)565-4567

▲해남 미황사도 10월 23일 오후 1시부터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괘불제와 작은음악회'를 마련한다.(061)533-3521

▲서울 북한산 심곡암은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진명 스님의 진행으로 이명진 무용단과 국악인, 가수 남궁옥분 등을 초청한 '제 7회 심곡암 음악회'를 기획한다. (02)914-886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법당을 도심에 옮긴 듯 김용우 개인전(27일까지)

김용우 씨(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조교)의 개인전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8월 2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 씨는 '신중도'를 비롯해 '산수도' '영산회상도' '시방천불도' '아미타극락회상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 '단청 백의관음도' 등 50여 작품을 선보인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비슷한 화풍의 '아미타극락회상도'와 '영산회상도(사진)'. 두 작품 모두 3m 길이가 넘는 대작으로 화려한 금니 채색이 눈길을 끈다.

유명한 단청장 이었던 덕문 스님에게 사사받은 김용우 씨는 전통 목조건물의 단청중에서도 탱화와 벽화, 별화 등을 주로 그리며 섬세하고 화려함이 두드러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경북 구미 관음사 후불탱화와 경기도 송탄 지장보살목탱화, 강원도 삼척시 미숭사 칠성탱화, 경기도 부천시 삼보사 후불탱화 등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김용우 씨는 1978년부터 96년까지 15년동안 전승공예대전에서 다수 입상했으며, 2000년에는 독일 하노버시에서 단청과 불화시연을 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적멸보궁 문수도량 성지참배
입시생 · 학업자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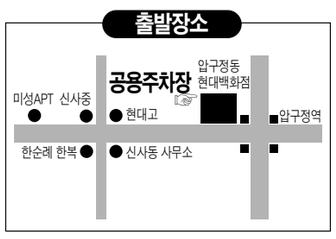
문수보살님의 대지혜 위신력이 충만하심을 기원올립니다.
입시생과 학업자를 위한 적멸보궁 문수도량 참배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대원력 성취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 태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 2004년 8월 28일(토) 오전 9시 출발
❁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 2004년 9월 4일(토) 오전 9시 출발

· 매주 문수도량 참배 출발 : 2004년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함.
· 출발장소 :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공용주차장

◉ 대 상 : 입시생 기도를 위한 불자님 혹은 입시생에 한함.
◉ 동참금 : 2만원

* 출발시 한강방생법당 방생기도 봉행
* 문수보살 예찬 문수기도 축원
* 입시생을 위한 학업성취기원 호신 문수보살상 목걸이 보시
* 점심공양은 본사에서 산채 청정 자연식으로 준비합니다.
* 서울 도착은 당일 오후 7시 ~ 8시 예정
* 차량준비 관계로 출발 1일전까지 사전에 전화 접수 바랍니다.

출발장소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성지순례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 3446-2158,2185, 3443-9871~7, 511-6210~5 FAX:511-6214

불교지도자와 제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2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전통의식반(제공의식 포함)	지도자 과정반
● 주 2회 (화,목) ● 시간 : 15:00 ~ 17:00	● 주 1회 (금) ● 시간 : 15:00 ~ 17:00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각단예불, 제공의식)	▶ 불교 교리 ▶ 현장 포교 ▶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 신행상담 및 방법론 ▶ 서예, 활법, 참선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4년 8월 11일 ~ 9월 4일 ● 개강일시 : 2004년 9월 7일 오후 3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교 통 편 : 차량운행

3.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